

“도 시외버스 보조금 ‘문제 투성이’ ”

이상현 의원 “패널티 받아 올해 5억4600만원 감액지원돼… 배분기준 형평성 결여도”

도내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지난 11일 제338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 미확보와 배분 기준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도 차원의 특단의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버스 재정지원이 보통교부세로 바뀐 2015년부터 사전 협의된 분권교부세 수준의 도비 매칭(50:50)을 하지 않아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억4,600만원을 감액지



이상현 의원

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타도는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강원도는 12억 이상의 지원금을 더 받았다. 심지어 도는 올해도 도비 매칭 금액을 맞추지 않아 내년에 또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결과 시외버스 업체들은 도비 매칭액에 모자라는 금액과 패널티를 적용받은 금액까지 이중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업체

와 도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버스 재정지원 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서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 비수익을 떠나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도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있으며, 또한 현재 도의 배분기준인 통산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1대당 지원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남도의 경우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시 공정한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구축해 유류사용량(35%), 차량보유대수(35%), 수직적자(30%)의 기준을 세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그동안 어떠한 개선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영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기준을 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으로 버스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도민 피해가 없도록 개선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했다. /고민형 기자

‘군산 어린이전용 공연장’ 개관

아동친화도시 군산시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어린이 공연장인 ‘군산 어린이공연장’이 문을 연다.

시는 지난 11일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정희상 어린이행복도시추진 공동위원장,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중심의 문화 공연시설인 ‘군산 어린이전용 공연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공연장은 구 KBS 공개홀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44㎡ 면적에 330석 규모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극장용 AV시스템을 도입해 영화 상영 등 물론 고품질의 문화예술 공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즐거움유치원 어린이들의 마칭밴드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꿈꾸는어린이집·소룡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여한 힐링허그 사감댄스,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여름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관에 이어 오늘 어린이 공연장 개관은 어린이들에게 열광을 보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의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휴식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과 어린이전용 공연장 개관을 기념해 11월을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공연장 무료대관 및 무료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1호 착공기업 기공식. 지난 11일 익산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주)BTC가 1호기업으로 착공식 행사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개 공장 동시 ‘첫 삽’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주)BTC · 커피 가공품 제조 창업기업 (유)씨엔씨레그비

내년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이 본격 시작됐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주)BTC와 커피 가공품 제조 창업기업인 (유)씨엔씨레그비가 전북 익산 왕궁면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지난 11일 동시에 첫 삽을 떴다.

이날 두 기업의 동시 착공은 지난 2014년 산업단지 착공 이후 2년6개월 만에 공장 착공에 불씨를 당기게 된다.

BTC는 내년 5월까지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라인을 완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씨엔씨레그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첫 창업기업으로 커피원두를 수입해 내년부터 커피 음료 티백 등을 생산,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3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 중으로, (주)BTC와 (유)씨엔씨레그비가 분담한 1공구는 올해 말 준공된다. /고민형 기자

바지락 치패 100만 마리 오늘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부안 곰소만 갯벌에

전북도가 바지락 치패 100만 마리를 방류한다.

13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바지락 최대 생산지인 부안 곰소만 갯벌에 크기 0.5~2cm 내외의 어린 바지락 100만 마리를 14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치패는 6월에 수정란을 확보해 실내 수조에서 양식한 개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매립과 간척 등으로 연안환경이 변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중국에서 매년

4,000톤 가량을 수입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러나 운송 과정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치패 살포 후 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발생으로 대량 폐사가 빈번했다”면서 “이에 도 수산기술연구소가 2010년부터 3년간 인공 종묘생산 기술개발사업을 거쳐 종묘생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20만 마리의 바지락 치패를 곰소만 갯벌에 방류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도, 내년 살림규모 5조 8116억원 편성

전년 대비 1754억원 증액

전북도가 내년도 살림 규모를 5조 811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11일 도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을 전년 대비 1754억원이 증액된 총 5조8116억원으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은 일반회계(4조6797억원)와 특별회계(4668억원)·기금(6651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 사회복지·보건 2

조1133억원 ▲ 환경보호 3281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2125억원 ▲ 문화 및 관광 2631억원 등이다.

특히 도 핵심사업인 토담관과 산림농성, 탄소산업 등을 비롯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 재난·재해와 복지, 소방 분야 등의 예산도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돼 최종 확정된다. /뉴스이

군산시의회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 채택

김경구 부의장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지난 11일 열린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경구 부의장 대표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독재국가 아닌 법치국가로 법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안보와 살림을 맡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에게 모두 넘겨준 것은 국

가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동안 밝혀진 부정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로 진행된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의 실체로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전환을 대통령 탄핵과 병행, 그리고 감쪽 개각을 통해서 국민의 분노를 풀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제시 공고 제2016-605호

원평천 신홍-내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원평천 신홍-내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김제시장

1. 사업개요

1) 사업명 : 원평천 신홍-내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위치 : 신홍지구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 김제시 부망면 신홍리(동진강 합류부 ~ 두원천 합류부) / 내광지구 : 전라북도 김제시 부망면 신홍리 ~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금구천 합류부 ~ 두원천 합류부)

3) 연 장 : 16.2km(신홍지구 9.5km, 내광지구 6.7km)

4)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내용

계획내용	신홍지구	규모	내광지구	비고
제방보강	L=14.98km		L=10.58km	보축, 축제
자전거도로	L=9.6km		L=7.5km	유지관리용도로
하도정비	-		L=12.34km	원형
어울림터	-		1개소	

2. 공람장소 및 기간

1)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김제시 안전총괄과, 죽산면사무소, 봉남면사무소, 경음시 건설과, 감곡면사무소

2) 공람기간 : 2016. 11.11 ~ 2016. 12. 09(21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6. 11.21(월), 10:30	김제시 봉남면사무소 회의실	
2016. 11.21(월), 14:00	김제시 죽산면 복지회관 2층	
2016. 11.22(화), 10:30	정읍시 감곡면 중평마을회관	

4.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서면제출

3) 제출의견 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정의 개편요구에 관한 의견

5. 기타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김제시,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 기타 내용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63-850-9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